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잡지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독립영화 판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 모여 만듭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인디다큐 페스티벌에서, 인디스페이스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한림이, 독립영화를 둘러싼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가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호인 'NOW'는 독립영화의 '지금, 여기'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인터뷰'라는 말처럼 서로의 눈과 얼굴을 마주하며 속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들은 독립영화 감독과 배우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립영화 환경 현장뿐 아니라 극장과 영화제를 비롯한 상영 공간, 제작사나 배급사, 후반 작업 스튜디오, 협박나 미디어 센터처럼, 독립영화와 연관된 모든 공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은 독립영화 활동가들이 서로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더 든튼히 할 수 있게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호 격인 이번 0에서는, 독립영화와 사랑에 빠지기 가장 좋은 장소인 정동진독립영화제와, 더욱 많은 연대의 손길이 필요한 밀양 송전탑 투쟁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야기들도 이었습니다. 편집위원들이 만나고 싶어 한 배우로 첫손에 꼽은 이진지 배우도 소개합니다. 감독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Q&A 현장도 자랑 중에 합니다.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이 들뜬 담근 비평과 칼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NOW의 시작에 기여이 함께해 주신 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NOW는 앞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독자들에게 만나려 합니다. 전문적인 기자들이 만드는 잡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툴고 거칠지도 모릅니다. 잡지의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독립영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을 겁니다. 꾸준히 오래갈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 비판과 손소리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만남들에 가슴 두근두근합니다.

김은아

now no.0 2013.07.29

발행처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책임편집 서울독립영화제제작지원위원회
편집주간 조영각
기획총괄 김용현
편집장 김은아
편집위원 김유리, 김지은, 박현진, 신혜미, 이도훈, 최희연
편집지원 장명범
디자인 이혜균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길 65-5 (관악동 62-2층) (02-800)
전화 02-362-6513, 02-334-3166
팩스 02-363-3154
이메일 prog@nif.or.kr
홈페이지 www.nif.or.kr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으로 발행됩니다.



04 SPECIAL

정동진독립영화제 15년의 기억

대한민국 유일의 야외 독립영화제 정동진독립영화제가 15회를 맞았다. 스크린을 직접 만들고 비와 포기를 찾아가며 힘들게 영화를 상영했던 초기부터, 한 번 대내운 사람이면 누구나 꼭 다시 가고 싶다는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게 된 지금까지, 15년 동안 정동진에서 벌어졌던 우수한 시간사고와 기술 살려는 기억들을 총출하게 돌아 본다.



10 HOT SPOT

밀양 송전탑 사전 현장

765kV(압로볼트) 초고압 송전탑 건립을 반대하며 밀양 주민들이 8년 넘게 싸우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전문기법 의회는 전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온갖 억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났다. 밀양에서 디큐멘타리를 촬영 중인 박배일 감독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15

02 EDITORIAL

14 ISSUE (저가당학: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포플이

15 PEOPLE 배우 이진지

16 Q&A 김태웅 감독 (그녀의 연가) 인디토크



18

17 Q&A 제7회 독립영화 쇼케이스 '일할만 감독 작품선'

18 다른의 날다른 시선 (경복)

19 성현의 영화사한 (진인하 나의, 춤)

20 원승환의 쓴소리



19

21 시와 만구름

22 INDIE TALK 나는 독립영화를 이렇게 시작했다

23 INFORMATION

포지 사진 :

제1회 정동진독립영화제 스크린 제작 모습.
오른쪽 사다리 위 두 사람은 정동진에야
매고 회랑을, 왼쪽에서 페인트칠이 아님이
있는 언덕은 김동원 감독이다.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나면 계속 가게 될걸!

그만 말았을까. 1999년, 정동진에 아외 영화제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정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운동장을 빌리고, 스크린을 만들려고 흰색 페인트를 나무판에 덧칠했던 그때, 훗날 많은 이들의 휴거로, 이 맘때 안부 인사로, 한지 모를 실명으로 오메달방 가디리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고 그땐 알았을까. 그야말로 맨땅에서 시작한 정동진독립영화제 가 올해 15회가 되었다. 그 시작에 있던 이들, 영화제를 준비하고 만드는 이들, 점점 이어신이 되게 해 준 많고 많은 관객들, 감독들, 찰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물어 봤다. 그 때 알 같은 이야기들.

취재/정리 신미애



정동진독립영화제
2013. 8. 2. - 8. 4.
강릉 정동초등학교

명그랑동전상 트로피를 물어뜯는
영화배우 **곽진석**(오른쪽)
친조 출연. So What'을 열창한 조영각(가운데)과
동료 배우 권귀덕(왼쪽)



명그랑동전상을 수상하는
영화감독 김 배우 **구교환**(오른쪽)



민용근 감독과 오노이치림 사회를 맡은
영화배우 **김꽃비**(왼쪽)



무대 인사 중인 영화배우 **김민지**(가운데)



인제부터 갔나? 2008년! <우리 액션배우다>가 상영한다고 해서 처음 갔었다. 명그랑동전상 받았는데? 그라썸! 명그랑동전상은 칸타스티크였잖! 목격한 동진만큼의 감동과 멋있어지게 조카 한 트로피! 그날 밤 파티를 즐기기에 이만한 안주까 또 있었을까...? 그때부터 거대한 열로 알고 있다. 바다, 영화, 연필만 들은 사람들, 다 좋다! 완벽한 휴가지! 마지막 날 마지막 상영 끝나고 운동장에 남아 있는 스태프, 관계 모두가 함께 모여 우산살 소리와 기념비적인 인사를 주고 마무리하는데 그게 참 좋다! 시간이 더 남는 광영들은 마무리 정리를 도와줘도 좋다. 정동진독립영화제 하면? 모기 피차음 싸움이 지리전 틈새로 쭉 뻗은 영사가 불빛, 영상을 담은 대형 에이스크린 뒤로 지나가는 기자들에서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곳에 신이 계시 리! 이번에도 오나? 최대한 스케줄 조율해서 가려 한다! 배려! 관객으로서 힘이다. 바람막이 재킷 꼭 챙겨야 함! 몇 해 전부터 노인장을 속으로 빌려 쓰는데 그곳 안의외자를 잘 이용하면 쾌적한 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라. 마사지방이 아주 리드미컬하고 시원하게 움직인다.

영화제 어땠나? 꼭 보이소카우트 뒤뜰 아영하는 기분! 바다를 아직 극북 못 해 정동진 바다를 못 즐기 아쉽다. 장수 프로그래머님이 심년지기 행년지림 물하고 못맞춰게 대해 주셔서 아주 좋았다. 그분의 친화력은 정말 최고지. 딱 한 번 보고 백 번은 가본 사람처럼 웃는 사람들한테 재미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한 번 왔다 기만 더 그렇게 되리라. 명그랑동전상 받았다. 아무니 받는 거 아는데, 완전 스페셜했다! 현금 몽땅! 올해도 가나? 지금 하고 있는 영화 마무리 작업이 안 끝나서 못 가게 됐다. 너무 아쉽다. 뒤뜰이에서 술 한잔 하면 좋을 텐데. 아쉽다. 그런 영화제에 힘이다. 여름 영화 캠프 같은 정동진독립영화제, 올해도 신나 주세요!

연제 처음 갔나? 2008년이었나? 여름방학 때 친구랑 가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놀러 가게 됐다. 첫인상? 너무 좋았다. 그때 맨날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 2009년부터 계속 시혜를 받고 있는데, 처음엔 좋아하는 영화제에서 제안을 주시니 마냥 좋다고 재밌었다고 생각했다. 사회 경력이 없어서 떨리기도 했지만, 이젠 어떤 어떤 파트너를 만날까 기대가 크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작년엔 해변에서 달이 뜨는 길 본 특별한 경험이 있다. 영화제에 힘이다! 15주년 정동초등학교 중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는 계속 계속 이렇게 아영다오 영화제요. 오래갈 것 바랍니다. 함께해요~!

작년에 처음 갔다고? 축소입지만, 내가 출연한 영화가 상영되어 배우로 무대인사도 하고, 끝나고 술자리도 참여하고 그랬다. 아, 배우? 어떤 영화인가? 한지해 감독의 <누가 공경화를 죽였나>의 공경화가 나다. 몰라해서 미안하다. 아니다. 원래 배우는 아니고, 연출부요! 일하다가 출연하게 된 거다. 촬영했을 때 느꼈어! 날랐었다. 아외에서 상영하는 거라 그런지 극강보다 더 친숙하고 편안했다고 할까. 극장에선 사진 일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지 않나. 근데 정동진 독립영화제에는 영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또 뭐 하고 놀았나? 바다에 갔다. 아련의 오이 없이 놀에는 못 들이겠다. 이번엔 꼭 준비해야지. 또 뭐가 생각나? 정동진 하면 해돋이! 뒤뜰이 갔다가 해돋이 보러 갔는데 구름이 거기서 둥근 해를 뚫었다. 다음엔 밤새 영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오나? 그렇게 될 것 같다. 외민! 안 술 한잔 하지. 그러자! 영화제에 힘이다! 사람 냄새 나는 영화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래머, 홍보팀장, 영상기사까지 겸했던
조영락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관객 임준형



영화제 홍보물 제작을 맡은
애니메이션 감독 장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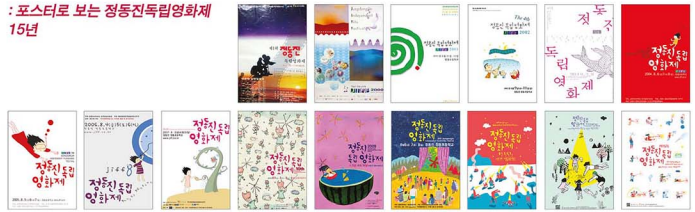


기회보다 함께해서 기회가 넓어졌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여러 사람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정동진독립영화제 가고 싶다는 글들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약간 질투도 난다. 여기서 영화 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뛰이던(웃음) 정동진에서 우연히 영화를 본 사람들이 독립영화에 한발 다가갈 수 있길 바랐는데, 지금은 독립영화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뿌듯해. **스크린도 손수 만들었다고?** 아시아와 스크린 제작은 강릉 친구들이 거의 다 했다. 양는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할까 싸우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무엇보다 비와 모기가 무서웠지. 비가 오면 상영을 못 하나니, 아열한 사고도 많았어. 스크린에 물 떨어 온 소리가 꽤 울렁울렁에 빠지질 않나. 근데 비가 오는데도 모기를 어떻게 막아주는 거냐. 여기가 베트남도 아니고, 그래서 모기보다는 준비하게 됐지. 사실 사회적 인과가 더 크지만, 기억에 남는 것? 비 때문에 영화는 못 보고 학교 교실에서 우물쭈물 소주 마시던 장면이나, 김동원 감독과 같이 하늘 차다보며 비가 올까 안 올까 마음 졸이던 순간들. 태풍 때문에, 버려진 뒤 몇 고막만 5만 원이치 사다 먹은 기억. **정동진에선 서울보다 표정도 밝은 것 같은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영화 상영되는 거 서서 지켜보다 보면 허리가 아파. (웃음) 지금은 포지션도 예매해서 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편하게 놀지도 못하는 형국이랄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비가 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의 부름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미치리도 원미다?** 정동진에 간 당산정 정말 열심히 즐겼다 오길!

언제 갔나? 2011년. 처음 알게 된 건 2-3년 전쯤. 우연히 영화제 정보를 접했는데, 휴가 때 마땅히 할 게 없더라고. 밑져야 본전(가봐서 볼 거 없으면 그냥 바다 구경이나 한 켄 치고 하고 정동진독립영화제에 간 건데, 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그 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 곳곳에 세워진 텐트, 신비스럽게 연기를 뿜고 있는 모기향까지 이런 그날 영화제가 아니라, 별이 자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인가? 솔로전.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 **영화제를 떠올리면 가장 생각나는 것?** 신비스러운 모기향이지. 화려한 그분귀기, 아우라, 캄, 벨, 그런 게 하나의 이미지로 떠오른다. **이번에도 오나?** 올해는 여차 천구랑 같이. 갈까 지랑했거든. 꼭 같이 가자고. **영화제에 하고 싶은 일.** 잘 정말 좋은 영화제/동·동시상을 막론하고 이런 영화제는 없다/ 찬 찬정 문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자유인이 라면, 반드시 오라. 그리고 보고, 이 영화제!

언제가 처음? 2000년에 처음 간 것 같은데. 사실 만드는 작품이나 정동진에서 상영해서 영화제가 사랑한 감독이든 해야 하나. (웃음) 그래서 그런가, 항상 볼 수 있던 것 같다. 별일 없던 기의 매년 갔지. 휴가처럼 많이 갔었다. 최신 독립영화도 보고, 바닷물도 음도 좀 마셨고. (무림업감독의 인생) **영화제 홍보물 제작을 맡은 때 정말 기뻐하던 못 말리면 어찌나 생각했나.** 왜냐면 트로피가 정말 예쁘니까 받아서 완전 기분 좋았지.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삼척지 않았는데. **정동진 바다에서 정말 잘 노는디러.** 아침까지 술 마시고, 해운이 보고, 술 먹고, 수영하고, 영화 보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지. **영화제를 떠올리면 딱 생각나는 것?** 수영하고 먹는 짜장면(까 정말 맛있지. **이번에도 오는지?** 가라고, 작업이 안 끝나서 갈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정동진 안 가면 휴가도 없이 올해도 끝날 거야. **영화제에 원미다.** 잘 정말 지역 영화제. 휴가도 영화를 접목한, 이런 특징들을 오랫동안 잘 살리길 바란다 한국이 점점 아예대 기회가 되어서 걱정이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비는 곤란해.

: 포스터로 보는 정동진독립영화제 15년



REPORT

매해 8월 첫째 주 금요일, 강릉 정동진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강릉세메이파크의 한국영상자료원이 함께 주최하는 등의 영화제다. 작년 강릉세메이파크는 강원 지역 유일의 독립애영영화제작관 강릉문화예술극장 신영을 개관했다. 극장 운영으로 분주함이 더해진 가운데,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여전히 강릉세메이파크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업이다. 영화제 개막을 한 달 남짓 7월, 정동진독립영화제 사무국을 뒀다. 사무국 곳곳은 역대 영화제 사진들과 미스코 두산상 소녀 모델, 작년에 사용하던 명그림전시상 등 통 반기는 사물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사무국 스테플들에 영화제의 인연과 준비 사항들이 대해 들었다.

취재/사진 김지은



인프로그래머정동진독립영화제 사무국장, 오은숙 1999년 영화제가 시작할 때 스크린 만드는 일에 투입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기술담당으로 참여하다가 올해 처음 사무국장을 맡았다. 주로 영화제 기간 조성이나 내외적 회의 등 정계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 우리 영화제는 왜곡되어 있고, 그 특성 상 재미있는 일이 많다. 관객이 적었던 초기에는 학교 교실에서 다 함께 아불을 깔고 앉았는데 이번감독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다들 나가서 운동장에서 잤다가(웃음) 얼마 손잡고 영화를 보러 왔던 아이들이 별 날이 지나 자원활동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독립영화에 대해 생소해 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10년 전부터 계속되다 보니 요즘은 시간이 많이 달라졌다. 동네방네영화제에서도 지원해 주고, 포스터를 붙이려 식당에 가도 어기도 붙여 달라, 커피도 붙여 달라면서 적극적으로도 응원해 주신다.

송은지(정동진독립영화제 사무국장, 왼쪽) 자원활동가로 2010년부터 활동하다 작년부터 스테플로 결합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관리자 뉴스레터처럼 대외적인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사실 국장님들 도와 공문서 류 준비나 회계도 처리하고, 영화제가 끝난다면 정신도 해야 한다. (웃음) 작년 개관한 강릉문화예술극장 신영과 강릉세메이파크,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거의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데, 현재 영화제 일은 거의 사무국장님과 내가 담당하고 있다. 박광수 프로그래머님은 작두기도 (웃음) 정동진독립영화제는 매해 여름날, 서울 조그마한 초등학교로 부소도 생기고, 현수막도 들어오고, 큰 스크린도 들어서며 마법처럼 영화관이 생기는 매력이 개인은 것 같다. 지역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동시에 독립영화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독 박배일과 동행한 밀양 송전탑 사건 현장

응답하라 국회여: 호소, 기도, 그리고 축제

7월 11일 오후 1시경. 너댓명이 쏟아진 폭우의 기세는 아스팔트를 뚫을 만능이 나드했다. 그즈음 밀양 주민 160여 명을 실은 버스가 국의 앞에 도착했다. 국회와 사당 대로변에 250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산하인생안전위원회에서 밀양 송전탑 관련 간담회가 열린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밀양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멈추어달라!

8년이 넘는 투쟁으로 주민들이 지쳤을 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회 앞에 모인 밀양 주민들에게서 피관한 기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날 장터 집회를 마치고 일투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는 강행군을 펼친 이르신이라 하기엔 너무 정박적이었다. 목소리는 다양했다. 한 할아버지는 "우리는 오늘 죽을라나 내일 죽을라나 모르지만, 저금이라도 죽기를 각오 했으니 관심을 가지 달라고 호소했다." "보상을 받느니 죽음을 달라던 한 주민의 말처럼 생존권과 재산권이 걸린 문제에서부터, 핵이라는 건 지구적인 현안, 전문가협의체의 날치기 보고서 제출에 대한 첨예한 비판이 이어졌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기차 같은 한전엔 제동을 걸기 위해 소수가 다수로, 다시 다수가 하나의 총체로 결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작이 불과했다. 1시간 남짓 이어진 집회 후, 주민들은 잠시 정전하듯 5명씩 무리를 지어 국회 정문 앞으로 이동해 절을 했다. 일종의 피포토였다. 단 순히 모여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표현하는 일종의 기도나 의식과 같았다. 주민 모두가 절을 하려 갈 수는 없었다. 경찰과 합의의 1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었고, 물리적으로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게 비거용 어르신들의 신체적 조건이 있었다. 몇몇 할아버지들은 자책이라도 하듯 바지를 걷어 보인 다. 모두 파스를 붙이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기도 하겠지만, 살벌했던 현장 충돌의 흔적이기도 하리라.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듯, 연신누가 절을 하고들 아왔는지 도누가 절을 하려 왔는지를 묻는다.

밀양이 표류하고 있다. 송전탑 건립을 둘러싼 한전과 밀양 주민들의 대립이 8년이 넘도록 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765KV(킬로볼트) 초고압 송전탑은 신곡리 3, 4호기에서 생성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전송하기 위한 것. 감압적인 공사 진행으로 강산이 망가졌고 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다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밀방풍행로다. 강자는 밀어붙였고 약자는 그 무지막직한 힘 앞에 탈락 주저않았다. 지난 5월 말부터 전문가협의체가 40일 동안 운영되었으나 '백년 보고서', '날치기 보고서' 제출, '이메일 서면 투표' 등으로 일축되면서 '전문가도 합의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 누구도 거친 세태를 정면으로 맞고 있는 밀양호를 정박시키지 못했다. 지금, 밀양은 주민들의 의지만으로 망명대회를 향해하는 중이다.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 한 이르신이 출가차게 절을 하고 있었다. 108배를 하는 소리처럼 경건한 몸짓이었다. 상징적인 숫자에 연한 절이 아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할 수는 만큼 절을 한 것이다. 800배였다.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숫자는 상관없다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시련의 바다와 양말에 구멍이 났다고 허허 실실하는 모습에서 슬픔이 탈색될 때 역설적으로 희망이 보인다는 상투적 인 말이 실감된다. 이르신이 절을 마치고 허리를 펼 즈음, 거짓말한 폭우도 먹구름도 서서히 풀렸다.



철회를 주도한 것도, 이날의 화풍정정을 찍은 것도 할머니들이었다. 철회가 끝나자 가까이 있었기 가 쫘스라웠던 저 어르신들이 누군가에게 등 때밀리거나, 혹은 등 때밀리는 척하면서 앞으로 나와 한 꼭조씩 뽑아냈다. 빨간 철회를 입은 일 양산신외보라누우주인 한분이 언뜻아 두 곡을 불렀다. 도중에 합창이 된 오수근의 내나이가기 때서 노랫말은 철회가 끝난 분위기 가 맞아떨어졌다.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 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세월은 아삭하고 세상은 아까워하건, 나이 들어도 삶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않기까지 어르신들은 삶이 즐겁다.

지금, 경계를 늦추지는 안 돼

어르신들이 지난 2년간의 힘겨운 밀양을 맞았다. 작년 봄부터 밀양에서 환경 중인 박배일 감독이 가드느라하셨다. 2월 12일 오후 3시, 밀양역에서 만난 그는 생각보다 컸다. 그리고 부산 사나이답게 깊은 눈매를 드러내지 않은 우직한 면모 가 있었다. 발발 없이 혼자서 내배게이션으로 주소를 찍더니 거차, 갑사나 했다. 간헐한 행동과 말투였다. 그냥 직접 가서 보라는 뜻였다. 감독의 안내자인 내배게이션의 안내자인 생각 할 거라도 없이 조반한직으로 밀양시 북북면 대항리 평방마을로 향했다.

가는 길에 반드시 거차 할 관련이 있었다. 바보 평방마을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움막, 한 전 낱겨서도 경찰을 통째로 감시하기 위한 한 주민 정문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주민들은 '제3호

소나'김문소라 부르고 있었다.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움막 안에서 할머니 두분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박배일 감독이 오자 손과 발뚝 자꾸 먹을 걸 내놓는다. 박 감독은 "할매요, 그만! 하면서도 넘죽넘죽 받아먹는다. 할머니들은 먹는 사람이 들진 말진, 듣는 사람이 먹는 태 걸중 할 말진, 자동차정래디오 같은 이야기꾼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날 할머니를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한전 놀이'였다. "우리는 그냥 한전 놀이다. 한 전 시방 안 가고 한전 놀이다." 할머니의 말속에 는 웃음이 가득 시러 있었다. 그래도 예전에는 "농담도 같이 씨뿌리 됐는데..."라며 웃으신다. 할머니들이 농사짓고 바빠도 손님을 정해 가며 매일 일간이 초소장을 저러고 있는 것도 우시로 공사를 재개할 기회를 엿보러 오는 한전 사람들 때문이었다. "한전 놀이라든가 이마에 딱 붙여 놓으면 알지만, 한전 놀도 사람'이라서" 어느 놀이 어느 놀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1초소장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할머니들이 매일 움막을 지키는 게 걱정됐던 면도 박 감독은 "요즘엔 한전 사람도 자주 안 오는 데, 왜 움막에 저러가고 물었다. 할머니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계를 늦추진 안 한다고 다그친 다. "자기서 외가 머뭇물하는 게 있거든. 겹세 가다프다. 내라기서 보면, 한전 놀이만 가깝다." 할머니들 일일이 이르르래면 또다른 부정적인 말사는 '간첩'이었다. 이때의 간첩은 한전 측 편에 넘어간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는 6.25 때 버릇이 돼가 간첩이 안 가냐?" 할머니 말처럼, 마을에서 간첩은 자나 깨나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실제로 밀양의 한 마을에선 한전 측이 10억 원가량의 돈으로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매수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한번, 마을에는 세 개 건의 이견과 갈등의 골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한전과 시방사 측에서 제공되는 보상금으로 마을회관이나 목욕탕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을 지을 수 있고, 도로 정비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반면 할머니들에게 마을을 지키려 하는 이유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다. "저 산신에 옷대 조상님들이 누웠거든. 조상 땅이니까 돈 100억을 준들, 고향 산신 지키는 선조 조상님을 땅에 다 놓고 내, 100억을 가지고 나오면 뒤랄고, 100억 거지고 내고 할 사나우 온 산다 아이기. 그러니까 100억도 필요 없는 거라." 할머니들은 실제 식민지도 경험했고 6.25도 다 겪어 봤지만, 지금 같은 전쟁은 들도 보도 못했다고 진지하게 한다. "그때는 우리나라 안 뭉겔리고 했고, 지금 이 전쟁은 전 세계에서도 없다. 저 나라에서 저 나라 들어먹는 다 르다니까?" 맞다. 유례없는 전쟁이고, 이가 없는 전쟁이다.

정경과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

할머니들과 수다가 끝난 후 평방마을을 찾아 송진영 129면 자리와 127면 자리를 둘러봤다. 두 곳 모두 벌목된 상태였다. 파헤쳐진 땅의 비비로 송진영 크기를 가늠해 보다. 초고와 송진영 땅의 높이는 약 100미터. 45층짜리 건물과 똑같은 규모다. 최근 개봉한 《과시와 함》의 제목과 로부터의 크기가 대략 200m 건물 높이라고 하니, 밀양에 들어설 송진영들은 현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괴물보다 두 배는 더 큰 셈이다. 작년 국회 정문 앞에서 800명을 하신 윤여림 할아버지(74세)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장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대치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긍정의 아이юн이었다. 전날 국회는 원론적 수준에서, 한전 측과 주민 측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다. 한전 측 손을 들어 주지 않은 것은 천다 당형이지만, 결국 국회는 원론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걸과 앞에서도 할아버지는 낙관적이었다. "신이 뱃사람처럼 주고" 주민들이 서로 도우니까



앞으로의 싸움도 이길 수밖에 없다고. 뭔가 특도한 이르신 같이 밀양에 대한, 그리고 부경에 대한 이유를 묻자 의외로 단순한 대답이 돌아왔다. "밀양에 대한 애착은 별로 없어요. 단순한 거야. 내가 사는 곳이라는 걸 알고는 거지 별다른 이유가 없어. 이문에는 애착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야. 국가가 시책을 잘못했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민들이랑 같이 밀릴 수는 있어." 할아버지가 그러는 미래는 혼자 하는 몽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희망이었던 것이다.

밀양 주민들을 지탱해 주는 건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다. 일찍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신은 모든 인간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인간을 영양실조해 걸리게 한다." 그 쓴 바 있다. 그의 풍자 속에는 국가가 신의 자리를 대체해 버렸고, 그걸 두고 국가가 인간을 짓누르겠다는 암시가 내포돼 있다. 만약 배야인이 생략한 문장이 있다면, 국가의 잘못된 위치를 바꿀 것을 힘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신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어. 나는 그걸 믿는 거지." 윤여림 할아버지의 이 말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세삼 확인한다. 이제, 밀양 주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차례다. 지금 밀양의 전 직들은 잠시 휴전 중일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취재/서진우

《밀양 아리랑》(가제) 만들고 있는 김득 박배일



활연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작년 초부터 오저필름에서 탈핵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강사로 활동하는 캐논카메라메이저 한 학생이 오(故) 이치우 이르신에 관한 이야기를 써어 왔다. 그걸 보고 한 방에 흥났다. 그 후 탈핵희망버스로 밀양을 방문하며 머그 머신에 일어난 전쟁을 감지했다.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었던.**

작년 9월 마음주인대취회 위원장이 한행으로 제포했다. 위원장은 매일 현장을 둘러 민부 직원들 하는 지 않았다. 하루는 숨이 있던 인부들이 위원장을 덮쳤다. 포클레인을 고장 내러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와중에 위원장을 콘크리트 기둥으로 쓰는 현행 통에 맞도록 묶어 두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동경정이 벌어졌다. 4개 마을에서 차례차례 목발을 짚거나 김스를 한 어르신들이 달려와 "누가 우리 위원장을 건드렸냐"며 이수타장을 만들었다. 주민들이 송진영 사건을 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밀양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시도가 좀 단단해지는 순간이었다고 할까.

밀양이 다른 투쟁 현장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거부에서 투쟁을 이끌어 가지 않는다. 결합하는 단위를 늘리고 있지만, 할매들은 "우린 우리 를 지내 남을 안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최종 사기 결정은 주민들이 한다. 그리고 할매, 할매들이 투쟁을 한다는 거. 그것도 정말 보수화된 저 지역에서만 말이다.

인물과 시간 중 어디에 비중을 둘까.

에즈 다류테리트를 시작한 계기가 특정 주제 의식을 품어내려는 거였다. 밀양 사건의 본질에는 비민주적이고 자본주의와 결합해 있는 핵 산업, 도시와 농촌 간의 에너지 불균등이 있다. 결국 자칫 주제가 멀어질 뻔 주제에는 핵은 의미의 민주주의가 될 것 같다.

장르적 측면을 들게 한 건데, 부담은 없나?

없다. 작품에 대한 생각보다는 의미가 있는 곳, 가장 치열한 어떤 곳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생각 했다. 만약 이 투쟁을 함께하지 못했다면, 그럴 때 후회하지 않았을까.

작품은 언제쯤 완성될 것 같은가.

가장 좋은 건 당장 내일 나오는 거지.(웃음) 일단 목표는 내년 5~6월이다. 그걸 시작점으로 밀양 사건을 3~4주기로 돌아볼 거다. 최악의 경우 월말이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할매들은 철남에 신이 갈릴 때 그걸 부르려고 올라갈 사람들도야. 짧게 볼 시간이 아니다.

프레티한 외모와 꽃같은 육체로 제한상영가 매려잡기!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주연 포돌이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어중무늬 없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뒤, 이러한 판정에 대항하는 행정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행정소송 3차 심리 끝에 김선 감독이 최종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주연 배우 포돌이와 특별 서던 인터뷰를 진행했다. 포돌이의 외모처럼 '프리미엄' 말뚝을 그대로 삼킨다.

취재 김유리



영화 말고 밖에서도 많이 뵈는 분이네요.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영화 출연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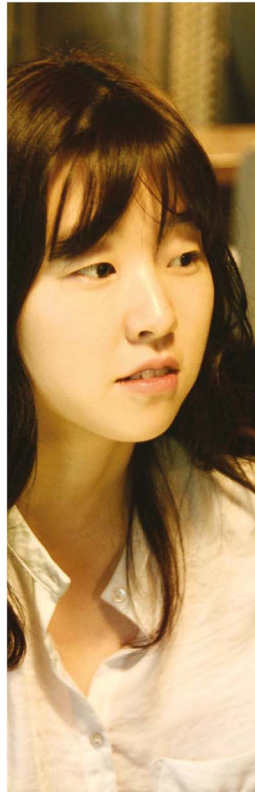
넵, 안녕하세요. 포돌이입니다. 1999년에 김기식 대장의 제안으로, 이현재 화백님의 팬으로 태어났으니, 벌써 15살이네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에 캐스팅 될 때도 '몽안의 얼굴, 그러나 콧수레같은 민첩함' 때문에 캐스팅됐다고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제 프레티한 외모와 꽃같은 육체가 있기에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요.

형영은 어떤가요?

이미 말했다시피, 프레티한 외모와 꽃같은 육체의 향연이라 할 수 있죠.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콧수레(퀴베를, 콧수레라 노동자, 그리고 아줌마 시라떼)를 바꾸 매려잡을 때의 쾌감이란 아무 말할 수 없었죠. 정말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느낌이었어요. 영화는 제 보람찬 표정과 '이모션'을 담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공산당에 대한 분노와 정의, 경건한 애국심, 나아가 아버지를 향한 효심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승소 이후 〈자가당착〉 개봉 전담에 대해 한 말씀을 해 주세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가 반정부-반체제 영화로 낙인찍힐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제가 영화 내내 콧수레를 매려잡는데, 이걸 누가 보고 반체제 영화라고 생각할까? 영동위는 제발 영화 보는 안목을 키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201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제한상영가 때문에 3~4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억울하고 또 억울하죠. 음, 영동위를 상대로 한 제한상영가 취소 소송에서 감독님이 승소했다고는 하는데, 영동위가 다시 항소했어요. 시간 자체가 너무 어차구니없어서 승소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영동위 쪽 논리가 "풍자는 랜잡지만, 너무 심한 풍자는 안 된다." "폭력은 청불이지만, 실제 정치인에게 가한 폭력은 제한상영가" 요런 논리밖에 없으니, 그쪽이 패소할 수밖에 없지요. 분명한 건, 대법원에서 서의 판결이 1심에서의 결과 그대로 '제한상영가 취소'가 나와야 개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소송해서, 내년에는 제 프레티한 외모와 꽃같은 육체 다 같이 감상했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힘내세요. 포돌이가 있잖아요.



FILMOGRAPHY
 1999년 〈대장 김기식〉 (주연), 2008년 〈장미의 남자〉, 2013년 〈청춘의 소환곡〉, 2013년 〈4차시 달빛공포곡〉, 2014년 〈해운대를 위하여〉, 2014년 〈180도 회전〉, 2014년 〈청춘의 소환곡〉, 2015년 〈복사〉, 2015년 〈유혹의 순간〉, 2015년 〈물고기는 달이 된다〉 (주연), 2015년 〈구차기 사탕〉 (주연), 2015년 〈초대〉 (특별출연), 2015년 〈대박! 대박! 대박!〉, 2015년 〈4차시 달빛공포곡〉, 2015년 〈달이 가버린 밤〉, 2015년

“얇고 길게” 가는 배우 인생 꿈꾼다

3대 영화제에 눈도장, 배우 이민지

게미의 발자국만큼 앞있는 데 캐리의 발자국이었다. 행운도 그녀의 편이었는지 출연한 작품마다 강력한 인상과 섬뜩한 기운을 남겼다. 〈부시전 밤〉은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 부문 은곰상을, 〈초대〉는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엔트 부문 단편 대상을, 그리고 최근작 〈세이프〉는 칸국제영화제 단편경쟁부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민지는 단편영화로 전안미답의 길을 걸고 있다.

취재 이도훈·사진 홍기림

〈세이프〉가 칸에서 수상하면서 덩달아 비박졌을 것 같다.

깜짝 놀랐죠. 그렇게 큰 상인지도 몰랐죠. 촬영 과정을 알기에 감독님이 잘해서 거분이 많아요. 상 받았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우쭐할 일도 아니죠. 상업영화에 나와서 대학 티드런 스타처럼 걸 가면서 눈치 볼 일도 없지 않아요. 운도 따랐고 타이밍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형통을 걷는 고등학생, 이혼도, 내연녀 등 시연 있는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다.

평민하게 살아와서 약간 굴곡진 인생을 표현하는 게 재미있었다. 평소에는 밝은 성격인데, 무표정할 때 더 잘 보이게 보죠. 감독님들이 내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잘 봐 주시는 것 같다.

피하고 싶은 액션과 꼭 해 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순간이요. 그대를 정도로 예뻐 취하는 연기는 어색할 것 같다. 특히 가련한 어우রণ은 안까지 가는 지신 없죠. 하고 싶은 장르는, 호러영화! 은근히 무서운 분장이나 피 묻는 걸 좋아한다. 살인할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경직 살인미인 그런 여자를 연기해 보고 싶다.

독립영화로 시작했고 지금도 인연을 맺어 가는 중이다. 남다른 애착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 자체가 재미있다. 독립영화는 친목이 두터워 좋다. 전에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 다시 뭉쳐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끼리 있으면 어차피 영화 찍는 분위기가 다. 촬영하다가 비 오면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요.

친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자금 정도는 케이스를 유져해 나가는 배우였으면 한다. 작품 하나 대박 나는 것보다, 얇고 길게 가는 배우가 되고 싶다. 몇 년 전에 정인지 선생님이 출연한 작품을 모아서 특별전이 열리는 걸 봤는데, 그때, 10년 안에 영화제에서 특별전을 치를 수 있는 배우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의 내 작은 꿈이다.

사람과의 만남, 그 미술 같은 순간

〈그녀의 연가〉 인디토크

2013. 6. 30 @인디스페이스

30분이 채 안 되는 심상진, 모쉴만 미소를 짓다가, 이복친지 몰라다가도 또 부끄러워 웃음이 터진다. 알 수 없는 감정이 미묘하게 전염되는 그녀의 연가. 그 둘은 무엇일까? 영화계 초년 달달함의 대표격인 두 감독, 김태홍(〈그녀의 연가〉)과 김중권(〈조금만 더 가까이〉)이 만났다.



태홍 시작부터 되게 경건하네요. 진지하게 보셨나요? 코미디인데……(웃음)

중권 마음도요 웃게 되죠. (웃음) 영화 제작 배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태홍 작년 초 동풍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감독 4명에게 '어릴때 마음'을 주제로 20분 내외의 영화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3일 정도 제두루에서 촬영을 했고, 연기하는 사람의 야무늬야, '연가'라는 게 가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런 왜 그런 것까지 어떤 생각을 하며 작업을 했어요.

태홍 살면서 그런 마음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걸 영화로 포착하고 싶었어요. 영화가 철수 이복친의 말을 정말로 듣는 건지 아니냐든가 그 고착하는 건지 아니냐든가 것보다는 건지, 경계 가 막 넘어가는 순간이 잘 표현되고 그게 전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수(박희순)도 연극 게임에 동침하는 순간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얘기를 쏟아내는 정서적인 교환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했죠.

중권 권타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특유의 마음을 만들어 내는 게 신선했어요. 영화 작업도 그렇거든요. 모순된 사람들이 만나야 순간에 배우가 가파 연기를 하고, 공간과 유연적인 순간들이 만들어지면서 미술 같은 장면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판소리 예기가 좀 더 금급해요.

태홍 요즘 씨가 판소리를 2주 정도 배웠어요. 춘향 가사 중에 '끼가꾸다'라는 대목을 본질로. 춘향 씨에게 노래를 하다가 본인의 소리에 감동해서 눈물이 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네 노래에 감동이 될까. 내가 하면서 너무 웃긴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소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 '천생 배우구나' 싶었어요. 촬영권 이틀 동안 하루에 20번씩 연습했던 기억이네요. 웃기지만 슬퍼야 하는데 슬픈 마음이 전달이 될까, 뜬금없이 웃기지만 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정했거든요. 표현 지 노래가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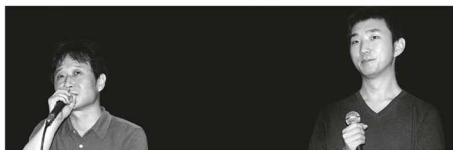
중권 〈그녀의 연가〉는 친한 사람들이 쓸 줄기에 작업한 게 보여요.

태홍 만약 10년쯤 지나 어느 시거부터 변화가 있었나고 물론이요 〈그녀의 연가〉를 찍을 때에도 대답할 것 같아요. 사나리오 없이 커다란 공간과 사람만 정해서 촬영 전 날 사나리오를 쓰고, 다음 날 연습해서 6시간 찍고, 저녁에 놓고, 또 사나리오 써서 다음 날 아침에 리딩하고, 이런 식으로 3일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스키팀이 크지만 규약이 많은 작업, 반면 어떻게 완전히 릴러 있는 작업 둘 다 너무 좋아요. 방향할 수 없는 지점이 상영된 가치기 없어진 감독이 됐을 때도, 〈그녀의 연가〉를 기억하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던 총괄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영화예요.

중권 단편이지만 말 많으신 것 같은 많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앞으로 감독님에게 뭐 더 줄 영화가 만들어질지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박희진

영화제에서만 혹은 다운로드만 만날 수 있었던 단편 독립영화 인디스페이스의 단편연예 개봉 프로젝트를 통해 매일 한 편씩 관객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그중의 연가)는 '단편연예 개봉 프로젝트'의 7번째 선정작.



〈Secret Garden〉에 일기가 등장한다. 굳은 시선에 썼던 일기가 영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했는데, 영화 안에서의 일기는 허구인지 실제 수왕록의 일부인지도 호호해서 설명할 것임이 든다.

영화를 위해 제작된 일기였다. 내용은 내가 썼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부 주 썼던 수왕록을 간 부들이 부대 관리 목적으로 훑적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후로는 사실대로 쓸 수 없었고 소심할 리 없게 됐다. 일기를 다시 봤을 때, 사실서 허구로 혼재되어 나 지선도 구분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고 그게 상상감으로 다가왔다. 왜곡되어 세워질 수 있는 기억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출발점이 됐다.

〈Golden Light〉에서는 "천문은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황금색 빛이 보였고 그 광범했던 인상과 체험을 되 찾으려는 행위"가 화면과 자음기용어 표현된다. 무의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의식의 이면이 궁금해 되면 해 봐야. 녹취록을 들어 보니 무의식의 입구에서 황금색 빛이 이미지로 강렬했다. 그 입구를 여러 게 만들어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생각했다. 이미 녹취록 중 황금색 빛에 대한 부분만 찾아 붙어 전체적인 소리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평소 체질한 일이 영상을 홀로써 황금색 빛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찾았다.

주로 시적인 이미지(비트)를 취한 〈프리즈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비트)를 절취해 와 극대화하는 방식으

로 타이틀들의 흠미더움을 넣었다. 원래 내일들이 보나 명명한 사나리오가 있었으나 해체하게 했다. 그때 친구가 보내 준 영상 메시지가 북부 주 공공금이 생겼는데, 내가 해체해 놓은 틀 안으로 무엇을 들이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였기에 그때부터 영상을 수필했다. 〈Golden Light〉에서 외부의 영상을 가져온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프리즈마〉는 이미지 사운드 노이즈의 할 수 있는 것들과 말한 것을 일부를 노이즈화하며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이 이미지의 소스는 무엇인가.

영화를 편집하는 중에 감추려 하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영상을 가운데 찾게 된 영상인데 그게 어떤 에피타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자체로 무시진 이미지였고 복귀해 낼 수 없는 상태였다. 나도 알 수 없는 영상이었고 이 영화를 통해 의미 가 다시 생겨나게 됐다.

본디 알 수 없는 이미지였다고 하니 신성한 느낌이 든다. 임철민 감독의 영화는 이렇게 모든 것이 유희화 되는 느낌이다.

그 이미지 자체가 더 분명하고 직접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이미지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더 집중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

'임철민'이라는 프리즈름

독립영화 쇼케이스
임철민 감독 작품선

2013. 6. 25 @한국영상자료원

일어버린 시간(기억을 이질적인 질료로 플라주론 재탄해 낸 '임철민'이라는 프리즈름 〈Secret Garden〉, 〈Golden Light〉, 〈프리즈마〉)를 통해 만났다. 반성적 영화평론가가 틀어본 그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가 어떻게 그리고 하는지도 매우 차차하며 영화가 완성됐던 것 같다.

일글린 후두두 후두두 하구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순간, 나가 사마라라는 것이다. 기억의 왜곡이나 기억의 소멸은 너의 시라할'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처음엔 의식적인 게 아니라 어떤 감각에 가워졌고 그것이 상상감으로 왔다. 그러면서 사건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단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Golden Light〉는 왜곡된 기억 자체를 영화로 풀어내긴 했지만 더 나아가려면 사라진 부분을 재해석해 새로운 기억으로 만들고 싶었다.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어떤 결과물로 치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다음 작품 계획은.

극장 안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벽 밖으로 투파하며 극장 밖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영화에 대한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리 최민아 사전 임철민

〈독립영화 쇼케이스〉는 매달 두 번째(독립영화진흥원 인디스페이스), 네 번째(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KOFCA) 최요일이다. 독립영화를 사랑한다. 관련 신청 및 상영 안내는 한국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www.kifv.org) 참조.

불안과 머뭇거림의 방안에서

(이미 많은 영화제와 평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경복>에 대해 또 하나의 찬사를 덧붙이는 대신,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에 남은 물음들을 던져보는 것으로 이 영화에 대한 내 방위의 여정을 표하고자 한다.)

스무 살, 단박 인공위성 행군과 동환의 목욕은 부모와 사는 집을 나가 새로 운 집을 구하는 것이다. 행군의 꿈이 된다는 모토였고, 동환의 꿈은 '일단' 음악을 해 보는 것이다. 막 수능을 끝낸 둘은 지저분하고 작은 방구석에서 먹고 담배 피우고 가끔 노래하고 글 쓰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들의 방에 이사를,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를 맞이하는 데 보낸다. 말하자면 영화는 그 무르익은 일상속 흑백의 화면 안에서 반복하고, 인물들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기껏해야 발출을 도모하며 부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훑지만 결국 마트 광고에서 동내 형과 손을 맞춘다. 우리는 행군과 동환의 이 일상이 며칠간의 일인지, 문 밖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모른다. 그 세상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들이 스물여덟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이 영화가 현실의 시간에서 반응하는 순간은 거의 없다.

둘은 이들의 방 장면들 중간 중간에 이들이 터널을 걷고 지나가 또래 집단들 사이를 부유하는 쓸쓸하고 우울한 모습이 삽입되고 이 웃돌은 방안의 세계와 달리 걸터앉아 스티븐 사킨으로 나열된다. 하지만 알밀히 알며, 이들은 행군과 동환이 무는 방과 연결된 필드의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다. 이들의 내면, 상상, 혹은 회상을 그 방으로 불러오는 웃돌이다. 영화의 결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행군과 동환이 방 밖의 세계와 마주하는 순간을 목도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터널을 걷거나 여전히 이상 집을 써오고 있다. 나는 <경복>의 이러한 선택이 의아하고 궁금하다. 그것은 우리들의 머뭇거림일까, 혹은 무언가에 대한 의지일까.

이상한 장면 하나가 있다. 행군과 동환이 동내 형과 손을 맞잡는데, 이 형은 이 대 초반에 자신이 뉴욕에 다니는 경험담을 떠벌리며, 젊을 때는 자코로 세기로 눈을 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이질적인 웃음이 불췌 끼어들다. 동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누군가에게(아마 동내 형에게) 말을 걸고 있다. 무심하고 가벼운 어투로, 자신에게는 아무래도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음악은 때려치웠다며 심심하니 빨리 오라는 것이다. 이 웃의 시계가 인제일까, 그곳은 어디인가 궁금해하는 왠나 영화는 다시 동내 형과의 술자리로 돌아오고, 행군은 무슨 일인지 훌쩍이고 있다. 절하지는 못했지만 맑고 원진하게 음악을 꿈꾸던 동환이 이질적인 아무것도 없게 음악을 그만뒀다고 말하는 표정. 그 평온한 제남도 당혹스러울지 모르다. 그 웃의 시계가 아무래도 미래 어디쯤에 떠 있는 것 같고, 그 뒤 행군이 웃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기가 어렵다. 영화는 지금 미래를 예감하고, 아니, 미래의 실패를 벌써 받아들이며 웃고 있는 것일까. <경복>을 그 시점이 지난 뒤에 예뻐하게 돌아보는 밝은 참운영화라고 보는 세간의 평가가 미덥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이 때문이다.

행군은 엄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집을 나가야 하는 이유를 적지 못하고 고민한다. 동환에게 묻자, 동환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சொ고 일러 주는데, 행군은 다시 그 질문 앞에서 망설인다. <경복>이 줄곧 방 안을 맴돌며 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나기가 할 때가 되었으며, 나기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왜 나기가 하려는 모토는 자만이 느끼는 무관절과 불안, 심 내와 이심 내사 이에서 대부분의 우리들이 갈당해야 할 감정이며, 수많은 성장영화를 보는 이들을 결국 세계와 충돌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터뜨릴 버리곤 했다. 그 충돌과 터뜨림이 언제나 지치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들에 비해 <경복>은 그 충돌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적어도 아직은 그래드 된다고 여기는 것 같다. 대신 그 불안은 터뜨리지 않고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건지해그레드 리듬과 오직 그들의 방 안에서만 가능한 어떤 공기, 혹은 울은 리듬으로 상화해하는 것 같다. 이 역시 <경복>이 청춘의 한때를 건내 내는 하나의 안간힘일 것이다. 다만 그렇게 비타다 행군과 동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 밖의 세계에 이던 가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방에서 어느 순간 유행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다는 인상이 마음에 걸린다. 나는 그 방의 정운함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근심한다.

남다른(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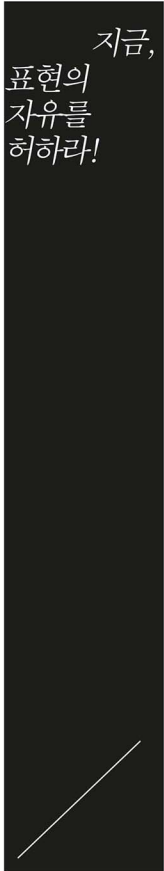
가면을 벗은 그녀들의 이야기

<잔인한 나의, 흠>은 친숙성폭력 피해자 돌고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 돌고래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고백했지만 엄마를 비롯한 가족은 그녀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았고, 쫓기듯 집을 나와야 했다. 그녀는 집에 남아 있는 동생들을 위해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족과 친척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잔인한 나의, 흠>은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미덕은, 단순히 친숙성폭력 피해자인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숙성폭력 생존자 '돌고래'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 돌고래의 남다른 용기와 감동아오리의 세심한 배려가 그 미덕의 원천일 것이다. 돌고래의 싸움은 험고고 외롭다. 한편으로는 '범의 원목'에 맞서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특히 엄마)이 저지려고 하는 가족의 행복'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장에서 피해자 진술(가해자의 범죄 사실 증언)을 하고 나온 돌고래는, 그일로 '가족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착각할 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증거(물증과 목격자 진술) 부족을 사유로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무죄 추정 원칙). 1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돌고래는, 이기가 없어 하면서도, 편사자 자신의 말을 믿어 주겠다고 절다는 사실을 더 반가워한다. "내가 바랐던 게, 그게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는 게, 내가 미처지 않았다는 거……." <잔인한 나의, 흠>의 카메라는 그녀가 가장 원했던 그것, 즉 그녀의 말을 들어 주고 믿어 주기를 수행하고 있다. 감동 아오리는 영화 밖에서는 그녀의 조력자가 되고, 영화 안에서는 (쉽지 않지만 공명함 함께) 빛나는 조연이 되기도 한다. 카

메라 앞에서 드러나는 돌고래의 남다른 용기는 바로 이 믿음에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잔인한 나의, 흠>에서 카메라는 단순한 기록의 도구가 아니라, 주인공 돌고래와 감동 아오리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매개자이다. 니아가 이 영화가 주목 될 잠재적 관객들과 돌고래 사이를 잇는 관계의 도구가 될 것이다.

<잔인한 나의, 흠>은 결코 화려한 영화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수행적(performative) 다큐멘터리이다. 이 책면, 이 영화의 카메라가 없었더라도, 돌고래는 자기를 찾기 위한 행동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또 이책면, 이 영화의 카메라가 없었더라면, 돌고래는 그 용감한 행위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었을지도 모른다. <잔인한 나의, 흠>은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사실과 정보의 전달보다는, 돌고래가 그 수행 과정에서 순간순간 겪게 되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흐름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 심세한 공명 능력 덕분에, 이 영화는 안보영의 말처럼, '관객으로 하여금 (성폭력 생존자의 말을 듣는) 새로운 프레임에 형성하도록 유도'(인디포럼2013 포스트그림 노트) 만들어 주고 있다. 우리는 (비평가이자 생존 토크쇼) <조세영, 2009년>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단순한 피해자이거나 생존자로 불려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가면들>(문경원, 2012년)을 통해 아동성폭력 생존자(특히, 친숙성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절곡과 고통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생존자는 대개의 경우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존재(자신이 피해자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가면 속의 억압과 고통을 벗어나 자기 치유의 과정을 밟아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가면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이다(가면들이 '의자'라고). 특히 친숙성폭력 생존자의 경우가 그러하다(가면들이)에서 끝까지 코자이크가 필요없을 어머니들은, 바로 친숙성폭력 생존자들의 어머니들이이다. <잔인한 나의, 흠>에서 돌고래와 아오리는, 마치 (가면들이)의 가족의 힘의 어머니들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집을 수박에 없었던 절곡에 대해 화답하듯, 당당히 가면을 벗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돌고래가 카메라 앞에서 연 얼굴을 드러내는 데 어떤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르나, 그녀의 연 얼굴을 담아내는 이 영화의 카메라에게도 그만큼의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세 편의 성폭력 생존자 다큐멘터리는, 그녀들이 영화의 안팎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최전선에 돌고래아오리가 있다.

남다른(영화평론가)



우리나라 헌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권리 또한 법률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내용을 심사 또는 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한다. 사전 검열은 법률로도 할 수 없다.

영화도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영화 창작자의 권리 또한 보호받으며,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 역시 금지된다. 영화를 통한 의사 표현을 금지했던 과거 영화법 및 영화진흥법 등의 관련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고, 영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의해 사전 검열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영등급분류 제도로는 형태로 사전 검열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행 영비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상영등급분류 제도를 두고 있다. 상영등급분류 제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영화 매체의 특수성에 따라 사전 심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영화의 사전 검열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상영 허가나 금지자를 위한 사전 검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의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찰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검열이라고 판단한다. 상영등급분류를 규정한 영비법 제20조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의 절차를 받지 않은 의사 표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와 제45조 및 제48조는 이 절차를 관찰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사전 검열인 셈이다. 현행 상영등급분류가 적법해지려면 검열의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우선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한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상영등급 부여의 위헌 판결로 도입된 제한상영가 등급은 실제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실인도 없다. 청소년 보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상영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성인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 관련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등급분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법 제도가 아님을 간파해선 안 된다. 등급분류는 영화 상영을 위한 등급을 정하는 것일 뿐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여부를 가리거나 위반이 없음을 확증하는 절차는 아니다. 영화가 다른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그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된다.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등급분류 기관은 이를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없고, 적절한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영등급분류 제도로 상영 허가와 금지를 결정하는 법 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영비법 제20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업자에게 상영등급분류의 의무를 부과하지만 제3항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제3항에 의해 등급분류의 의무가 없는 영화도 상영을 하려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상영등급분류 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영화에 대한 규율일 뿐이다. 이를 넘어 영화라는 표현 행위를 허가하고 금지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상영등급분류 제도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 등급분류 제도는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 등 등급분류의 목적과 영화 표현의 자유 보장이 무조건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두 목적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버리를 맞출 때다.

원형환 : 독립영화팀(메이스트) 관리자, 트위터 @amnic_twt



시와입니다. 이집트의 시와 이름을 제 이름으로 쓰고 있는 음악인이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인연으로 지면을 차지하게 되었네요. 이유 그런 리가요. 독립영화를 생각하면 계속 글과 같이고픈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입니다.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친구이기 때문일까요.(네, 저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흥대 부근 클럽에서 조용히 노래하니 사라진 지를, 아니 제 음악을 어떻게 아신 건지, 감독님들이 음반으로 발표한 노래를 영화에 실어 주었어요. 극영화도 있었지만 다큐멘터리 영화와 더 가까웠습니다. "걸상사에서", "달랠라" 등이 인기 곡이었고요. 그게 저와 친구의 시작이었죠. 하긴 이 만남과 우정의 지식이 예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독립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디음악이라고 불리는 것 말고예요. 저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며, 기타를 연주하고, 음반을 제작합니다. 게다가 상업적인 목적이 없지도 않습니다. 제 음반을 많이 알아 밥벌이하기를 기대하고 있기거든요. 그러나 독립적으로 제작하며 활동하고 있으므로 독립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참, 제가 음반을 제작한다고 해서 수익적으로 음반을 만든다고 여기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공공장서 만들고요. 제작자인 저는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يا가 가셨어요. 이리다가 이 칼럼의 제목은 '시와 뜬구름'이 아닌 '시와 선진국'이 되어 버릴 수도 있겠어요. 조심하겠습니다. 독립적인 창작을 추구하는 이들이 바다같은 같은 방향이 있을 테니, 독립 음악인 시와와 독립영화의 만남은 자연스런 일이었고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남 이후엔 아예 영화음악을 만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앨리 American Alley) 어요. 영화에 들어가는 여섯 곡을 작곡하고 엔딩 곡에는 가사도 붙여 영화와 같은 제목으로 제 음반에 실기도 했어요. 가사는 감독과 같이 썼어요. 시처럼 감독이었죠. 학자치고도, 정적이기도 않은 가사를 원한다고 하더니, 급기야는 가사의 첫 문장을 내밀었거든요. "짐을 부쉬 버렸네, 또 짐을 짓기 위해서." 저에게는 참으로 과격적인 가사였어요. 그리고 참 좋았기 귀예요. 저더 면 쓸 수 없을 가사였으니까요. 덕분에 따라오는 가사와 멜로디가 잘 찰떡졌습니다. 이후에 만든 음반의 열한 곡 가운데 가장 여동생인 가사를 가진 곡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든 사람에게 특히 돋보이는 한 곡이 되었죠. 가사나만 선으로만 그려진 흑백 그림에 색을 칠하면 못할 법한 변질된. 제 노래엔 가사 참 중요하다는 걸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꼈어요. 제 음악이 다큐멘터리에 종종 쓰이는 것은 가사의 덕도 잊지 않을게 생각하고 있고요. 목소리의 색깔이 영상에 온전히 잘 물گون고 하겠지만, 가사가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감정을 절제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요. 하긴. 그런 정서의 노래니까, 제 목소리도 강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이었나 봐요. 이렇게 써 보니 정리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의 조합으로 다큐멘터리 감독님께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와 뜬구름'이 부합하는 문장이 아예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뜬구름 짙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구름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다만, 제미있는 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그런데 제 이름 '시와'는 사실 흥대 주변 '호' 뒤에 있던 맥주마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저 맥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맥덕은 아닙니다.

시와 : 노래하고, 노래를 만든다. 노래는 나를 부르는 거울이다. 음반을 내 보니 알겠다. 글도 알겠다. 책도 알겠다. 책도 내 본 덕에 알겠다. 2019년 하반기는 새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음악 작업과 함께 보내려.

이 친구는 자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특별히 봉사일이 투철한 건 아니지요. 이제와 고백하자면 처음 서울 독립영화제 자원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영화에 대한 원대한 꿈은 가진, 혹은 독립영화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진 친구들 사이에서 '이, (앨프리)'가 독립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을 조용히 속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독립영화생 태생이었다. 그러나 이어진 인디포럼, 인디포럼 등 유례했던 자원활동 경험은 어느새 나를 '자랄 열심히 하는 친구'로 만들었으며, 감사하게도 인디스페이스 막스 스테프 자리에서 독립영화와 함께할 수 있게 됐다. 극장 안에서만 관객부터 '혹시 '대한독립 인사' 할 때 그 독립인가요?'하는 관객까지(혹시 흑백영화를 상상했을까?) 상상조차 될 다양한 관객들과 마주친다. '이제는 알 때도 왔는데' 싶을 만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 갇혀 있는 독립영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지지 그리고 사랑으로 더욱 뜻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김도현(인디스페이스 기획운영팀)

한 독립영화 팬이 활동가가 되기까지

마냥 영화가 좋아 영화를 인생의 친구로 삼았다. 그러다 내 인생의 첫 독립영화 <여섯 개의 시선>을 만났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을 알게 된 나는 독립영화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 매력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현실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다. 난 영화를 즐기고 독립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보는 한 관객일 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관심과 애정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기본제로 그런 기회가 찾아왔고, 지원스텝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영화를 응원하는 팬으로 시작하여 독립영화 활동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박미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원)

예술 언저리 서식자에게 걸려 온 운영의 전화

'예술가' 되자, 지금 당장이라는 모 소소기의 말처럼 나도 예술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하릴 뻔해버리자기 쉬운 중학교 2학년. 재능 부족을 느끼며 바실림 중점반을 시초로 서브컬처에 본격적으로 빠져들었다. 고교 진학 후 석식비 오천 원임을 몰라 못이 갈리만큼을 모았다. 가끔은 뺨 대신 밥을 먹고 싶었기에 살림이 걸리기도 했다. 후대로 공연을 보러 다녔다가 시작해 예매가 되지 못하더라도 예술 언저리에서 일하고 싶었다. 성인이 되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한 번 중, 인디음악축에서 인연을 시작했다. 우연히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이 배경음으로 깔린 단편영화를 시작으로 급속도로 독립영화에 심취했다. 2012년 1월, 인디포럼 사무국원 공고가 났고 영화제 폐막까지 3개월을 모두 어떻게 할테냐 후, 8월, 전화벨이 울렸다. "2년하세요,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김동현입니다. 면접을 보셨던 해요." 이 그것은 운명의 테스트나니 ..김지은(서울독립영화제 홍보팀장)

나는 독립영화를 이렇게 시작했다

영화제, 배급사, 극장, 협의체, 미디어센터, 독립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공간에 몰입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독립영화의 인연을 물었다. 속닥속닥, 그들의 수줍은 고백.

영화 현장에서 창작자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로

2005년, 벨이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다룬 바람만 나오는 선릉기 옆에 누워 황금고 있는 나를 같이 살던 형이 벼로 끌고 나왔다. 도착 한 곳은 광화문에 있는 미디어아트 단편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던 형이 스테프가 부족하자 날 끌고 나왔던 것이다. 거기서 처음 보는 장비들을 갖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처음으로 영화 현장에 참여하게 됐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고, 몇 달 뒤는 나는 사람들이 오야 한 형의 영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다. 그 후로 크고 작은 영화에 스테프로 참여했고, 미디어에서 극영화제작 크루를 들으며 영화도 한 편 연출했다. 2013년, 해를 거듭할수록 벨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다. 그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광화문에 있던 미디어트는 상암을 거쳐 홍대로 옮겼고, 방에서 황금인 나는 미디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제는 영화를 만드는 위치에 있다기보다,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을 하다 보면 장비를 빌리러 오는, 혹은 수업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이전에 영화를 만들어 느꼈던 보람을, 지금은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며 느끼고 있다. 이 보람이 나만의 개인적 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에까지 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오대양(미디어아트 창작지원실 기술팀장)

막연한 동경과 신심함을 넘어

이것저것 호기심 많던 고등학교 시절, 한 수업 배급사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마치 몰랐던 직업의 세계에 몰두했던 기억이 난다. "좋은 영화를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근사한 일"이라는 막연한 동경심을 들었던 그때는, 그 일을 직접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 기사를 다시 떠올린 건 대졸 공원을 알뜰 무렵. 또 다른 직업의 세계에 몰두했던 그때, 문득 '후회'로 남기도 싶지 않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을 발판 삼아 무작정 영화제에 참여했다. 인디큐레토리얼, 서울한경영화제, 미경쟁 단편영화제 자원활동을 거쳐,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활동할 무렵 사내이탈과 인연이 닿았고, 그렇게 달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다. <쿠버의 연인>, <명미 여자>, <대추리에 살다> 등 영화제 활동 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영화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그 신심함이 내겐 독립영화 그 자체였다. 많은 작품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금에서야 그 신심함을 내려놓고, 내게 독립영화란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막연한 동경심을 넘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이해가 찾기 시작했다.는 부디라는 자기 고백과 함께, 행복한 활동을 향한 다짐을 이 글을 빌어 전한다. 막연한 동경을 안고 이 일을 시작한 이에게 이 글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오보라(사내이탈 기획팀장)

BOOK

영화잡지 anno. #1, 몽타주 Montage
영화사 달리니 | 무료 | 188p



영화잡지 하나를 사러져 가는 지름. 얼마 전 새로운 영화잡지가 탄생했다. 그것도 대단하지, 무가치다. 잡지 이름 'anno.'는 주시경의 뜻의 영어프랑스어 'annation'의 약칭. 또 하나의 한 개의 영화 용어를 키워드로 다룬다. 창간호 주제는 '몽타주'. <아이디조>, <피나 3D>, <드라큘라의 신부들>, <오르낭비트>, <이리>, <코제타>, <달빛> 등 시대와 장소를 넘나드는 다양한 영화들로 몽타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책 앞면의 영화 썸네로 도정하는 즐거움도 배려하지 않다.

..백호사: 서울아트시어터, 한국영상자료원, KT&G 상상미용 사서회, 씨네24 신재, 스포티하우스, 씨네큐브, 인디스페이스, 영화의전당, 부산 극도애송관

WEBSITE

독립비평 TAKE

<http://indieforum.co.kr/take>



인디포럼에서 젊은 비평가들을 위해 2011년부터 마련한 공간, 인디포럼 상영작들에 대한 비평 코너로 독립영화 리뷰와 감독 인터뷰를 올려준다. <해운대소녀>, <그리고 싶은 것>, <나의 고향>, <경복>, <미국의 바람과 불>, <요세미티와 나> 등 지난 9월 2일 인디포럼에서 상영된 영화 총 50여 편에 대한 날카로운 글들을 읽을 수 있다. TAKE는 비경쟁 독립영화제 인디포럼에서 수여하는 인디 37의 상 중 하나인 '돌라키' 선정 주제이기도 하다.

APP

찾자

인도모티드/앱스토어/제곱 | 무료



앱의 원리는 간단하다. 앱을 구동하고 자기 본 영화 소스 위에 별점을 준 제목은 이 과정에서 한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100편 제목이 평가할 수 있다.) 가입하면 자신이 매긴 별점에 따라 영화를 추천해 준다. 최신 개봉작에 대한 예상 별점도 볼 수 있다. 영화 예매에 시는뉴스 출연 정보도 24시간 정보와 비슷한 성격의 영화도 함께 보여준다. 페이스북으로 가입할 경우 친구들의 영화 취향도 엿볼 수 있다. 독립영화를 물론이고, 국내외 영화제와 장르 등 다양한 카테고리도 영화를 평가하고 추천받을 수 있다. 깔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도 한류하다. 웹<http://watcha.com/>으로도 만날 수 있다.

독립영화를 위한
소셜펀딩
한독협 초이스

펀딩21 <http://www.funding21.com/>

씨네21이 만든 소셜펀딩 사이트 펀딩21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독립영화협회가 함께합니다.
'한독협 초이스' 이름으로 찾아갈
독립영화들의 소셜펀딩, 함께해 주세요!

'한독협 초이스' 문의 editor@kifv.org



탐앤탐스가 한국독립영화를 응원합니다!

독립영화제대상영화 '탐앤탐스 인디스카이데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삼성동 코엑스점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전국 탐앤탐스 매장을 방문하시면 개봉 독립영화의 예고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2013 작품 공모
보고 싶어, 니 영화!
2013년 8월 6일(화) - 9월 2일(월)

www.siff.or.kr fb.com/siff.kr [Twitter@siff_kr](https://twitter.com/siff_kr)

서울독립영화제2013
2013. 11. 28. THU. - 12. 6. FRI.



출품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누구나
공모 일정 2013년 8월 6일(화) - 9월 2일(월)
평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토/일, 공휴일 휴무)
제출 자료 출품신청서(www.siff.or.kr에서 다운 가능), 심사용 DVD 2매
접수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출품신청서 이메일 접수 가능)
제출처 서울독립영화제2013 사무국 (수신: 프로그램팀 앞)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82-9 2층 (121-800)
문의 전화 02-362-9513 / 팩스 02-363-3154 / 이메일 prog@siff.or.kr
자세한 출품규정 및 공모 내용은 홈페이지(www.siff.or.kr) 참조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배포처

| | | | | | |
|---|---|--|--|---|---|
| <p>서울</p> <p>서울아트시네마 스폰지하우스 씨네코드 선재 씨네큐브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아트나인 아트하우스 모모 인디스페이스</p> | <p>인디플러스 필름포럼 한국영상자료원 KT&G 상상마당 시네마 KU시네마트랩 KU씨네마테크 미디어트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영상미디어센터</p> | <p>총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몽소 물고기 상수동카페 성영태 커피 하우스 유어마인드 이리카페 땡스북스 흥대점 카페 공드리</p> | <p>경기/인천</p> <p>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p> <p>강릉</p> <p>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p> | <p>대전</p> <p>대전아트시네마</p> <p>광주</p> <p>광주극장</p> <p>전북</p> <p>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떼جو)</p> | <p>대구</p> <p>동성아트홀</p> <p>부산</p> <p>국도예술관 영화의전당</p> |
|---|---|--|--|---|---|